

2026년 제 14 차 충남지부 집단교섭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2026년 충남지부 집단교섭 의견접근

9월 3일(목) 현대엠시트에서 14차 충남지부 집단교섭이 열렸다. 자동차업종 공동파업과 금속노조 2차 총파업 진행 후, 3주 만에 재개된 교섭이다.

충남지부 이상호 지부장은 “중앙교섭 타결됐다. 충남지부도 오늘 마무리해보자”며 교섭을 시작했다. 사용자측 교섭대표는 “중앙교섭 우리도 정리할 수 있는 게 마련된 것 같다. 제시안 준비했다. 부족한건 논의하자.”라며 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측은 기본급 6,000원 인상과 중앙교섭과 발전기금 정상화는 각 사별 논의에 따르자는 입장을 제출하며, 축소교섭을 통해 이어가자 제언했다.



충남지부 교섭단은 오늘 교섭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모아 축소교섭 제안을 승낙했다. 이에 지부 안드레 사무국장, 케이비오토텍 이종성 지회장, 현대모비스아산물류 정동인 지회장, 현대트랜시스서산 백신일 지회장으로 축소교섭단을 구성했다.

이어 5시간 넘는 축소교섭이 진행됐다. 사용자측은 여전히 같은 핑계를 반복했다. 부담이 큰 사업장이 있어 상

향된 임금인상안을 낼 수 없으며, 현대차그룹사는 중앙교섭 참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발전기금 역시 2021년 이전분은 근거가 없어 낼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긴 시간 공방과 근거제시 끝에 **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접근했다.**

2026년 충남지부 집단교섭 의견접근안

[임금인상]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월 기본급 10,000원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정기 호봉승급분 제외) 단, 추가 인상분 및 세부사항은 사업장 보충교섭에서 논의한다.

[중앙교섭 참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충남지부 사업장 중 중앙교섭 불참사는 사업장별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27년 내(분기별 1회 이상/총 4회 이상) 중앙교섭 참여 여부 관련 협의를 진행하며, 해당 지회는 협의 결과를 충남지부로 제출한다.

[충남지부 발전기금 정상화]

① 충남지부 발전기금을 미납·연체한 회사는 2021년(4/22) 이후 본은 납부계획서를 2026년 말까지 충남지부로 제출하고, 2028년까지 납부한다.
② 2021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 제반사항 확인 후 2026년 말까지 해결한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노사공동 대의자제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충남지부 관계사용자는 산업지속가능성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산업별·지역별 교섭 촉진’ 국정 과제가 금속산업에 필요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있다는데 공감하며, 노사 공동으로 충남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충남도는 사회적 공익성이 있는 금속 노사 지부집단교섭 합의 효력을 산업·업종·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한다.
- 충남도는 각종 노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충남지역 금속노사 지부집단 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우선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 충남도는 지역 금속 노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실효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지부집단교섭을 진행하는 금속 노사단체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충남도는 위 요구의 실현 방안을 논의할 노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노사정 협의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한다.

[노동정의의 정의 확대에 따른 권리 보장]

충남지역 1. 단체교섭 - [교섭의무] 신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는 기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중이라도 마찬가지이다.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제도의 신설 또는 기존변경 요구
-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경쟁의 결정

다. 사용자측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정년퇴직 예정자 지원]

충남지역 1. 고용안정 - [퇴직자 지원] 신설

회사는 당해연도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퇴직 후 인생 설계에 위한 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단, 세부 사항은 각 사별 노사협의 후 2027년부터 시행한다.

2026. 9. 3

충남지역 사용자 대표

세명테크 유재천 (인)
현담산업 이송수 (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지부장 이상호 (인)



진전이 없던 **중앙교섭 참가 문제**에 대해 각 사업장 별 노사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발전기금**과 관련 21년 이후분은 28년까지 납부를, 21년 이전분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공동 대지자체 요구**는 중앙교섭 합의안에서 조금 더 진전되어 3항의 경우 원안과 같은 안으로 쟁취했다. **노동쟁의 정의 확대에 따른 권리 보장**의 경우에도 교섭의무에 대해 노조법 개정 내용에 따른 변화를 지부 협약에도 담았다. 마지막으로 **정년퇴직자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고 내년부터 퇴직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2026년 교섭을 마무리하며 충남지부 이상호 지부장은 "14차 교섭에 이르는 장기간 교섭이었다. 올해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노사 교섭위원 모두 고생 많으셨다."며 교섭을 매듭지었다.

사용자측 교섭대표는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다. 엠시트도 마지막까지 장소제공 등 감사하다."며 감사 인사로 교섭을 끝맺었다.

6시간 반에 걸친 마지막 교섭 끝에 2026년 충남지부 집단교섭이 의견접근하며 마무리되었다.



현대엠시트 현장순회

